

# 광주시 선정 '스타기업'...대박 행진

### 디케이산업 '디에테' 제습기...흡수용 1시간 매출 1억

### 올해 오이솔루션 등 15개사 선정 14억 지원

우리나라 기후가 고온다습한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불쾌지수가 치솟던 지난해 여름, 흡수용 제습기는 유명 제습기들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대부분 유명 가전업체의 제품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디에테(d-ete)'라는 생소한 이름을 단 제습기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요즘 대세인 곡선라인과 기능 대비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중무장한 '디에테'에 열광했다. 중소 가전 제품으로는 드물게 방송 1시간 만에 매출 1억원을 올리기도 했다.

제습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디에테는 광주의 디케이산업(주)(대표 김보근)이 내놓은 제습기 제품명이다.

디케이산업은 금형업체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1차 부품협력업체였다. 단단한 기술력 덕분에 삼성전자의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가전외장 부품을 생산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광주시가 추진중

인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되면서 '디에테'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중소기업로서는 드물게 완성 가전제품을 내놓았다.

디케이산업은 스타기업 선정 후 광주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제습기 브랜드인 디에테 상표를 출원했다. 지난해에는 3만대가 넘는 주문량이 밀려올 정도로 대박을 터트렸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디자인상과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수상하는 등 가시적 성장으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1년 연매출이 1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2배나 성장한 것이다.

연매출액도 2000억원으로 정했다.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1년 연매출이 1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2배나 성장한 것이다.

광주시의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침체한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향토기업 디케이산업에서 출시한 '디에테' 제습기.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첫 도입한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우수 특허를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IP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특허출원→디자인·상표 개발→수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IP스타기업 공모에 지역 내 중소기업 54개사가 신청함에 따라 매출과 고용규모, 지식재산 출원현황, 향후 기술 파급력, 경영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이솔루션 등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올해 지원

비로 전년 9개사 12억보다 증가한 14억 4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담 컨설턴트가 배정되고, 광주지식재산센터를 통해 3년간 총 2억원 내에서 국내외 특허출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손두영 광주시 기업지원과 과학지원담당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생명지킴이 본격 양성...학생 자살예방 적극 대처

### 광주시, 교직원 300여명 교육

광주시가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내 생명지킴이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자살예방센터는 학교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내 자살예방 인력 양성을 위해 16일 광주시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교 교감, 학생부장, 교육복지사 등 90여 명과 상담교사, Wee클

래스 상담사 100여 명 등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한국형 생명사랑지킴이 '보고·듣고·말하기'라는 대상자별·분야별 특성화된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살징후 식별능력 향상, 자살에 대한 민감성훈련, 자살위기 개입방법 등을 집중 훈련시키는 것으로 자살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기 위해 마

련됐다.

교육은 박상학 자살예방센터장(조선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 강사를 맡아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보기 ▲실제 자살생각을 묻고 죽음과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기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자에게 도움을 의뢰하기 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국형 실제 동영상을 통해 언어, 행동, 상황적 신

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제 역할극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자살예방센터는 지난해 노인기관 종사자, 노인돌보미, 동네 통·반장,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44차례 3500여명에게 실시했다. 일선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건설본부 안전 특별교육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14일 광주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직원과 건설공사 현장소장, 책임감리원 등 건설공사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대처요령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14일 광주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직원과 건설공사 현장소장, 책임감리원 등 건설공사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대처요령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 서구 무진대로 보수공사...내달 12일까지

### 광천사거리~계수교차로

광주시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무진대로 구간을 보수 공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구간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 광천사거리~계수교차로 시정 방향 편도 8차선이며, 오는 6월 12일까지 포장을 덧씌우고, 노면 반사 성능을 갖춘 차선으로 도색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공사 구간인 만큼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중

단하기로 했다. 공사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는 시민은 빛고을 콜센터(120번) 또는 도로이용불편신고 모바일 앱서비스인 '척척해결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인홍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포장도로 관리담당은 "공사기간 동안 차선 축소 등이 불가피해 차량 간·정체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공사중 불편사항이나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점을 신고해 주시면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윤석 광주U대회 사무총장 인터뷰

# "국내 첫 흑자대회 만들겠다"

### 운영비 줄여 1200억 절약

### 예산 절감 모범사례 평가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가 최근 국제행사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스포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광주U대회를 예산을 대폭 절감한 국가재정절감 대표 사례로 언급하고, 앞으로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에도 광주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광주를 거론한 것은 광주의 행보가 그만큼 독보적이었기 때문이다.

흑자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15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을 만나 예산절감의 의미와 과정, 앞으로의 대회 준비에 대해 들어봤다.



(FISU)와 3년여 동안 힘겨운 협상도 벌여야 했다. 최고의 시설을 요구하는 연맹과 줄다리기를 협상을 통해 시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운영경비부터 경기장별 유사 가능성을 통합하고 타 국제대회 물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모성 경비를 줄였다.

-2015광주U대회가 국가재정절감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내에서 열린 국제스포츠대회 중 정부승인예보다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없다. 물가인상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와 각 경기연맹의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개선 등 수많은 비용 상승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U대회는 지난 5년간 재정 절감 노력을 통해 정부가 승인해 준 사업비보다 1200여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대회 역사에서 첫 사례이자, 국제대회 재정 운영의 우수한 모델로서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산 절감의 핵심은 무엇인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민폐 대회'가 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부담과 사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되는 신속시설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회 이후에도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안겨주는 신속시설을 3개소로 줄였고, 68개 경기장은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흑자대회 실현은 물론 대회 이후 재정부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장 건설비용을 대폭 낮췄고,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 수익은 전액 조직위의 수입이므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흑자대회가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다. 또 메가스포츠대회 후유증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대부분 과도한 시설투자에서 재정부채 후유증이 왔기 때문이다. 대회 이후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 경기장마저도 대학 내에 배치했다.

-대회가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대회 준비를 크게 3단계로 나눠 봤을 때 올해와 내년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대회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물자, 수송 등 지원체계를 점검해보고 실전 운영능력을 기를 계획이다. 양질의 자원봉사자도 충분히 확보해 민간요구의 침범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추시D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딱터,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예스크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협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